

01 심폐소생술의 의미와 방법

➤ 현장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

-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환자에게 자신이 응급처치자임을 알림
- 원칙적으로 의료기구나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음
- 빠른 시간 내에 전문 응급의료진에게 인계함
- 응급환자에 대한 생사 판정을 하지 말아야 함

➤ 심폐소생술의 의미

-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
-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을 마비상태로부터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됨

➤ 심폐소생술 방법

- 심정지확인 → 119 신고 및 제세동기 요청 → 가슴압박 실시 → 인공호흡시행 →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(의식회복 및 자가호흡 시 멈춤) → 회복자세

01 심폐소생술의 의미와 방법

➤ 심폐소생술 요약

- 분당 100~120회 속도로 가슴 압박
- 5~6cm 깊이로 가슴 압박
- 압박 후 가슴을 완전히 이완
- 가슴압박 중단의 최소화
- 심폐소생술 5주기마다 압박자 교체
- 적절한 인공호흡(기도 열기, 10초 이내 2회,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)

02 자동제세동기 사용법

➤ 자동제세동기(AED :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, 심장충격기)

- 심실세동(심장이 가늘게 떨면서 죽어가는 형태의 부정맥) 시에 환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해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비
- 정상적인 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, 심폐소생술 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이를 사용해야 함

➤ 사용방법

- 전원 켜기 → 두 개의 패드 부착 → 심장리듬 분석 → 제세동 시행 →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

➤ 환자이송

-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척추를 완벽하게 고정
- 쇼크 환자는 다리를 올린 자세를 취해줌
- 외상 환자는 처치 후 환부를 고정하고, 주변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함
- 이송 과정에서 더 이상의 손상을 입지 않고, 무의식 환자가 기도폐쇄로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송 도중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상태를 관찰함
- 가능하면 경과를 잘 아는 최초 응급처치자가 동행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문 의료진에게 제공함
- 모든 응급처치 사항을 기록하여 병원에 제시함